

牛峯李氏大宗報

發行人兼編輯人：李萬寧
主幹：李丙泰
發行處：牛峯李氏大宗會 02)753-6340~1
서울시 중구 무교동 33-1 무교빌딩5층
http://woobonglee2000.hihome.com
印刷處：신오성기획인쇄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3/4분기 대총회 회장단 및 종무위원회 개최 장학 사업 활성화와 대총회비 제도 논의

忠範(변호사) 일가 종무위원으로, 宗茂 일가 기획담당 이사로 위촉

2003년도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3/4분기 종무위원회가 9월 23일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만녕 회장의 인사와 총범 변호사(청장년회 부회장)를 대총회 종무위원으로, 종무 감찰공 문중 재무이사를 대총회 기획담당역으로 위촉하였다.



만녕 대총회 회장

이어 규약개정제 들어 가 병태 사무총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즉 제4조 [목적]②의 종친간의 친목 도모를 대총회와 지방종 친간의 상호협조 및 유대 강화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하는 조치로 '종친간의 친목도 모 및 대총회와 지방종친 간의 유대강화로', 제5장 제16조[구성]에서 종무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념을 넓혀 전문성 있는

종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 이어 종인들로부터 대총회 회비납부 방안을 토의한 끝에 연 1만원 수준으로 회비를 받도록 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따라서 이 회비는 대총회 경비 중 대총회를 종인들이 끌고루 받아 볼 수 있도록 우송비 및 사무비용으로 활용되는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그동안 문중 일가 자녀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놓여온 출신 일가의 자녀를 돕는다는 취지아래 어려운 형편으로 진학을 못하는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만녕 회장의 뜻에 따라 추진하여 온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그런데 모금계획은 세

보 발간으로 이룩된 수익금과 임원진의 찬조금으로 3억원의 기금이 확보되면 장학재단을 조직하고 독립예산으로 운영하며, 나머지 1억원의 장학금 모금방안은 전 일가가



통덕량(13세 胤) 묘소 1450년대부터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석원동(속칭: 돌안)의 선대 묘소를 살펴보고 있는 대총회 회장단 및 종무위원들

참여하도록 계획을 시행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대총회에서 집계된 모금액(약조된 금액포함)은 2억 1백만원으로 대총회에서는 회원 제도를 활성화시켜 평생회원 10,000,000원 이상, 특별회원 5,000,000원 이상, 소종중 및 일반회원 1,000,000원 이상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모금된 장학기금은 다음과 같다.

- ▶ 대총회 세보편찬 기금 : 약 1억원(우리은행 장기저축)
- ▶ 만녕 대총회장 : 1억원(1억원 약조금 3천만원 납부)
- ▶ 청녕 대총회 부회장 : 1백만원

따라서 만녕 회장은 일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뜻 있는 장학사업이 되도록 당부한다고 말하고 종인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만녕 회장은 7월 21일 총범 변호사와 9월 4일 화인 법무법인 영법 대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장학사업에 대한 방안을 상의하였으며, 9월 5일에는 태녕 감사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한구 부회장을 비롯한 병덕, 영법 부회장, 태녕 감사 및 총범 변호사 등은 평생회원으로 지원할 것을 약정하였다.

조상의 純白한 얼을 찾는다는 것은 한 번쯤 나의 存在價値를 過去에서 찾고 내일의 기대를 찾아보자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에서 지나온 조상들의 行蹟을 찾아보고 오늘의 位置를 정확하게 알아 내일에 대한 자신들의 繁榮과 向上을 위해 노력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原動力은 向學熱에서 左右된다고 봅니다.

옛말에 三代無顯官이면 그 가문은 문벌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조상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어 받아 후손들에게 자녀교육에 힘쓰도록 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일찍부터 教育은 百年大計라고 하였습니다.

헝가족 생활에서 자기의 만족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에 와서 잊혀진 혈연의 의미를 일깨어 주고 사회 생활에 필요한 禮節과 共同意識을 함양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후손들의 習性을 오늘의 既成世代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빛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課題를 풀기 위해 문중과 후손을 위하여 大宗會에서는 獎學事業을

최우선의 目標로 삼아 宗財의 資產增殖의 一環으로 獎學制度를 마련하여 牛峯李氏 문중의 人才養成을 한다는 뜻을 펴게 되었습니다.

趣 旨 文

- 牛峯李氏 大宗會 獎學基金 募金에 즈음하여 -

그 첫 사업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進學을 못하는 문중 놓여온 자녀를 돕기 위한 獎學基金 募金運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大宗會에서는 방침을 다음과 같이 두고

展開하겠사오니 이에 宗人들의 적극적인 협력있기를 부탁드립니다.

獎學基金의 募金은 ① 세보발간으로 이루어진 수입금 1억원과 회장 1억원 및 종인들의 찬조금 1억원 등으로 3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②

독립된 장학재단을 조직하고 독립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데 두고 ③ 점차적으로 전 일가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전개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3년 계획(2003

~2005)으로 모금대상 및 방법은 우선 대총회 임원 및 종무위원의 명의로 발기하고 기금목표액의 달성을 위하여 모금 방법은 평생회원 10,000,000원 이상, 특별회원 5,000,000원 이상, 일반회원 1,000,000원 이상으로 하고 목표액에 도달하면 장학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규칙 및 세부계획 준비)하여 기금을 관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총회가 목표하는 놓여온 자녀돕기 장학기금 모금에 전 일가가 나서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2003년 9월 1일
牛峯李氏 大宗會

장학기금 납부 및 청약 일가

만 념(회 장)	1억 평생회원 납부액 30,000,000원
청 념(부 회 장)	납부액 1,000,000원
한 구(부 회 장)	1천만원 평생회원 청약
병 덕(부 회 장)	1천만원 평생회원 청약
영 범(부 회 장)	1천만원 평생회원 청약
태 념(감 사)	1천만원 평생회원 청약
총 범(종무위원)	1천만원 평생회원 청약

2003년도 임원 부담금 납부현황

(2003년 10월 20일 현재)

만 념(회 장)	3,000,000원
한 구(부 회 장)	1,200,000원
학 구(부 회 장)	1,200,000원
병 덕(부 회 장)	1,200,000원
청 념(부 회 장)	1,200,000원
순 념(부 회 장)	1,200,000원
병 무(부 회 장)	1,200,000원
영 범(부 회 장)	1,200,000원
창 무(부 회 장)	600,000원
태 념(감 사)	600,000원
명 준(감 사)	600,000원
병 석(종무위원)	600,000원
병 국(종무위원)	600,000원
병 용(종무위원)	600,000원
병 수(종무위원)	600,000원
근 형(종무위원)	600,000원
창 무(종무위원)	600,000원
범 서(종무위원)	600,000원

【2002년도 총회찬조금 내용 고침】

대중보 20호 1번 찬조금(2002년총회)중 잘못되어 정정합니다.
 德擘(지평공파 문중회장) 300,000을 德用(지평공파 문중회장)100,000원으로,
 世擘(중성군 문중 찬안)을 世用(중성군 문중 찬안)으로,
 德擘(섬의/홍보 담당역) 100,000원이 누락되었기 삽입합니다.

회장단 및 종무위원 김포·강화 고적탐방

통덕량(胤)공 및 참판(圭)공 묘소 순례

지난 6월 21일 대중회에서는 2/4분기 회장단 및 종무위원회의를 겸한 김포 강화지역 고적현지 답사 및 선조묘를 순방하였다. 이날 회의는 2003년도 총회장소 문제와 일자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결혼예식으로 인한 장소를 얻기가 어렵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 10월 24일 금요일 11:00 ~ 13:00로 예약할 것을 의결하였다. 따라서 금년 총회(10월 25일 토요일(음력 10월 1일))는 전쟁기념관 무궁화 홀에서 개최하기로 가결했다.

이날 고적답사 및 선조 묘소 순례는 김포 강화 종회(회장: 현녕)의 안내로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선조묘와 방향단이 있는 애기봉을 둘러보고 강화도의 고려궁터, 강화고인돌, 전등사 및 초지진포대를 돌아 봤다. 그런데 牛峯李氏가 金浦市 通津과 因緣한 時期는 高麗때 蒙古의 侵攻(1231~1270) 당시 開城에서 江都(江華島)로 遷都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始祖公의 次子 義烈公(2世 子晟 平章事 諡 義烈)의 9代孫 監役(德裕)공의 墓所가 通津 佳

佐洞 咸朴 亥坐라는 譜牒(1900年版 筆寫本)에서 根據를 찾는다. 이 때가 1450年代(朝鮮 世宗朝)로, 金浦市 月串面 開谷里 石院洞(俗名: 돌안)을 중심으로 集村村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550여 년이 된다. 그 후 先代들의 墓所는 많이 있으나 嗣孫들이 時祭를 지내는 墓所만이 確認할 수 있으며 나머지 많은 墓所는 失傳되어 구분이 어렵다. 오늘날까지 傳統的으로 時祭를 지내는 先祖는 通德郎(13世 胤)공으로 1980년에 碑石과 墓所(石院洞 麗金山

甲子)를 새로 가꾸었다. 일행은 먼저 通德郎(胤)공의 묘소와 참판(圭)공은 壬辰倭亂 당시 通津 鄉校에 모신 五聖位牌를 文殊山에 安置시킨 공을 세웠으며 이 傳統은 後孫인 罐雨齋(23世 鎬學 參奉)公도 丙寅洋擾時 五聖位牌를 麗金山 石室에 安置시킨 공을 세워 3代祖가 贈職을 받아 家門을 일으킨 선조분이다. 參判公(21世 圭 1805~1868 贈 嘉善大夫 戶曹參判兼 同知義事)은 固城과 墓所(石院洞 麗金山

學, 僉樞 鎬旭, 鎬烈, 僉樞 鎬哲, 鎬雲을 두었다. 특히 長男 鎬學은 丙寅洋擾 때 通津 鄉校의 五聖位牌를 麗金山 石室에 安置시킨 功으로 先考은 戶曹參判에, 祖考 諱 光秀는 左承旨, 曾祖考 諱 彬은 司僕寺正, 三代祖가 贈職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牛峯李氏 門中이 義烈公 9代孫 監役公 諱 德裕의 墓所가 通津 左佐洞 咸朴고을에 모셔진 이래, 三代無官이란 낮아진 家門을 다시 세울 수 있었다. 그 후 孫子 義用은 庚李氏와 사이에서 參奉 鎬

(6면 계속)

감찰공 문중 종중회 활성화에 박차

감찰공 종중회장에 병철 대중회 고문을 선출 묘소 치산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한구 부회장을 선임



병철 감찰공종중 회장

감찰공 문중에서는 현재 자산관리를 위해 조직(회장: 병길)된 종회를 실질적인 화수회로 재조직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병길회장 후임으로 병철 대중회 고문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첫 사업으로 감찰공 묘소 치산을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한구)를 발족하였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감찰공 문중 일가를 대상으로 3천만원의 기금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기금이 마련되면 약 3,000평에 달하는 감찰공 묘소 치산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회장에 선출된 병철 대중회 고문은 취임사를 통해 "우봉이씨 문중으로 일가들이 뭉쳐야 할 이때에 공교롭게 파중회 재조직

한다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나 중 시조 묘소를 가꾸기 위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기왕에 회장으로 추대된 이상 일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따라서 병태 대중회 사무총장은 병철 회장과 한구, 학구, 병길 부회장 및 건녕 종무위원을 감찰공파 묘소치산추진위원으로 하여 긴밀한 협조아래 금년 10월말까지 치산작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다.



종무위원 임명 9월 30일 총범 변호사를 대중회 종무위원으로 위촉했다.



김포 월곶면 개곡리 김포·강화 종중(회장 현녕)을 방문한 회장단 및 종무위원들

의렬공 문중 사종(嗣宗)과 승종(承宗)계대 대한 見解

“肯定的 思考와 否定的 見解” 기사 및 김포계보 서문을 중심으로

範 植

시작하는 말

세보 壬午譜(2002년판) 출판에 앞서 2년간을 두고 정확한 세보 편찬을 위하여 몇몇 문중에서 야기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여 왔으나 일부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세보가 출판되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 하겠다.

필자는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풀기 위하여 대중보 18호(2001. 10. 31) 4~5면의 “肯定的 思考와 否定的 見解”의 기사를 읽고 매사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논의해야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포계보 및 대중보 18호 4~5면의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세보상 의렬공 계보의 문제발단

김포문중 호화(22世 鎬學)공이 1900년도에 편찬한 김포계보의 의렬공의 아드님인 승종(3世 承宗)계대 외에 사종(嗣宗)계대가 따로 있는 것으로 계대를 달리하여 집필한 김포문중에서 인오보(壬午譜)에 등재할 뜻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 문제

으나 김포문중은 김포계보의 정확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수차 이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다음은 김포문중이 김포계보의 합리성을 주장한 내용과 그의 대한 부당성을 진술하여 본다.

첫째, 세보편찬위원회(문서번호 2000. 2. 15) 1~2면을 보면(전략) 각 문중이 소장하고 있는 가승, 파보, 기타자료와 함께 검토한 결과 김포문

중의 세보는 필사본 중 가장 근세에 경기도 지방의 일가를 중심으로 편찬된 세보로 각파(의렬공, 감찰공, 원외랑공, 문중 등)를 망라하여 편찬내용이 구체적이고 충분한 자료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으며, 김포 세보편찬 서문에서 각지의 문중(감찰공 문중 友松公의 9세손 洗馬公 龍九씨)과 상의하여 편찬하였다는 서문 내용으로 볼 때 신중하고도 심혈을 기울여 편찬된 것을 알 수 있다...(후략)

합하여 두 집안의 구보를 간단히 써서 족보를 만들었다...(후략), 위와 같이 김포계보에 대한 견해가 상반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일이다. 위 대중보 기사에는 경향각지의 각 파를 막론하여 편찬내용이 구체적이고 충분한 자료에 입각하였다 하였는데 서문에는 경향각지에서 모인 문중들이 왈가왈부하다 수단하나 내지 않은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 이점을 심도 있게 규명하여 보아야 할 일이다.

둘째, 대중보 제18호(2001. 10. 31)5면 내용을 본다.

....(전략) 갑인보에는 廷一, 廷三 계대는 질손(絶孫) 무사(無嗣)하고 廷七 계대만 庚子別譜(김포)와 동일하게 이어져 있다.

그러나 22~24세 계대는 더 이상 확인하여 밝힐 길이 없어 갑인보와 같게 한다...(후략). 김포계보와 정유보 및 갑인보(乾274면 대조)와 대조하여 볼 때 갑인보에 廷七 계대는 경자별보와 동일하게 이어져 있다고는 하나 동일하게 이어져 있지 않고 있으며, 廷一, 廷七, 廷弼 계대의 실존하지 않았던 가승 인물의 기록은 김포 계보중에서 가장 의문점이 많고 혼탁한 계대라고 할 수 있다. 늦게나마 더 이상 확인하여 밝힐 길이 없어 갑인보와 같게 한다는 일은 다행한 일이나 결과적으로 김포계보는 불정확하고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김포문중 스스로가 말하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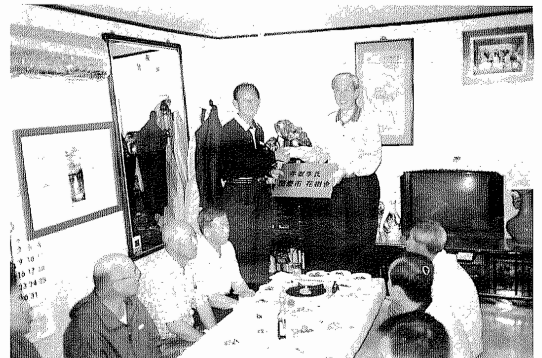
셋째, 김포계보의 光天, 增, 垠, 培의 입출후(入出

后)관계(甲寅譜 76년 판 참조)를 살펴본다. 대중보 16호(1999. 10. 30)4면을 보면...(전략) 광한(光漢)공은 아들이 없어 의렬공 문중의 은(垠)을 광련(光鍊)공은 증(增)으로 대를

일) 5면의 기록을 살펴본다....(전략) 增, 垠, 培, 光天 네 분의 입출후 관계의 상이점은 더 이상 확인하여 밝힐 길이 없고 문중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갑인보와 같게 한



和茂일가가 가꾼 남골묘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5-2번지 150여평 땅을 정리하고 60평 터에 정성드려 공원처럼 만든 남골묘 전경



만병회장이 세병 문경시 중증 회장에 간판을 전달했다.

이었다...(후략). 정유보 갑인보(1974년판)에는 입후(入后)한 근거가 없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갑인보 초판을 증판(1976년 판)한 것을 보면 수정판이라는 표시나 정정 표시도 없이 김포계보와 같게 수정출판되어 혼동을 이 루게까지 하였다.

광천(光天) 1976년판 乾 1227면과 乾 1225면 대조 증(增) 1976년판 乾 1229면과 乾 802면 대조 은(垠) 1976년판 乾 1241면과 乾 798면 대조 배(培) 1976년판 乾 1246면과 乾 274면 대조

세보를 임의로 수정한 일을 규명해야 할 일이지만 더욱 이상한 일은 대중보 18호(2001년 10월 31

다...(후략) 여기서 입출후 관계 문제보다 더욱 괴상한 일은 임오보를 보면 光漢공은 김포계보를 집필한 鎬學공의 종조부(從曾祖)가 된다. 먼 조상이라면 모르되 호화 공은 직접 자기 조부가 몇 형제인지도 모르고 입후(入后)까지 하여 계보를 집필한 사실은 어느 모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김포계보는 경향각지의 문중에서 모여 심혈을 기울여 충분한 자료를 모아 작성하여 집필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다는 계보가 이제 와서는 더 이상 근거를 확인하여 밝힐 길이 없어 갑인보와 같게 한다고 김포계보 이와 같은 현실은 김포계보 집필

丁酉譜(1927년판) 甲午譜(1974년판)의 의렬공 계대

시조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公諱	- 子晟 -	承宗	- 階 -	頤時	得直	- 輝生 ---	
					允暉	- 善 -	弘年 ---

金浦系譜(1900년판)의 의렬공 계대

시조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公諱	- 子晟 -	嗣宗	- 薰 -	壽暉	得謙	(允暉) - 善 -	弘年 ---
					得孫	----	壽 -

는 이미 정유보(丁酉譜 1927년판)나 갑인보(甲寅譜 1974년판) 편찬시 여러 문중에서 논의되어 사실과 다르므로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재논할 필요성이 없는 일이며, 또 이곡(李穀)의 가정집(稼亭集)에 있는 의재기(義財記)에 의렬공 5세손 양직공(養直公)은 “나에게는 친형제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위 계보의 윤휘(允暉)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김포계보의 사종(嗣宗)계대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중앙일보에서 발간된 만성보(萬姓譜) “성씨의 고향”을 살펴보면 자성(子晟)공은 사종(嗣宗)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옆쪽의 계도를 보면 사종(嗣宗)공은 없고 승종(承宗)공이 계대를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사종(嗣宗)계대는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이를 부인하였

중의 세보는 필사본 중 가장 근세에 경기도 지방의 일가를 중심으로 편찬된 세보로 각파(의렬공, 감찰공, 원외랑공, 문중 등)를 망라하여 편찬내용이 구체적이고 충분한 자료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으며, 김포 세보편찬 서문에서 각지의 문중(감찰공 문중 友松公의 9세손 洗馬公 龍九씨)과 상의하여 편찬하였다는 서문 내용으로 볼 때 신중하고도 심혈을 기울여 편찬된 것을 알 수 있다...(후략)

김포계보 의용(義用) 공 서문,(전략) 경향간의 몇몇 여러 파에 통문을 냈으나 왈가왈부(曰可曰否)하여 모두 떠들다 수단 한 곳도 들어오는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다만 세마공 용구씨와 합의하고 힘을

당시 경향각지의 문중이
알가알부하다 수단하나
내지 않은 원인이 여기서
입증하여 주며, 이번 일도
김포계보가 사실과 다르
다는 것을 김포 문중 스
스로가 자인하고 불신임

했다.

맺음말

이상과 같이 주로 김포
계보 및 서문 내용과 대
중보 18호 '肯定的 思考
와 否定的 見解'에 대한

세보상의 문경공 직손과 계도

7世	8世	9世	10世
喬	芳年	淳	根完(無后)
┌ 根專(副使公派) - 紹 - 成孫 - 卓 -			
└ 根繼(參判公派) - 經 - 英孫 - 濟 -			

김포 계보상의 문경공 직손과 계도

7世	8世	9世	10世	11世	12世	13世	14世
喬	芳年	淳	根繼	緝	世銘	憫	宗德(無后)

김포계보 鎭學公 서문참조

하는 결과라 하겠다.

넷째, 김포계보 16세
僉使공 延鳳과 세보상의
僉使공 延熙공과의 差異
糾明: 김포계보를 보면
延弼, 延熙, 延鳳은 삼형
제 분으로 延熙 공은 무
타이라 기록되어 있고 延
鳳 공이 첨사 공으로 대
를 계승하였다. 정유보,
갑인보, 임오보를 보면
延熙공은 조친이 아니고
생존자로 僉使공으로 대
를 계승하였다. 延鳳 공
은 延熙 공과 동일인도
아니고 세보 상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가상인물이라
고 하겠다. 결국 이와 같
은 점도 김포계보는 호화
공과 의용 공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집필하여 신뢰성이 없다
는 것을 여기서도 말하여
주고 있다.

다섯째, 김포계보상의
문경공 직손 계대 검증:
우봉이씨 계도를 보면 문
경공 직손과는 10세 근완
(根完)공 이후는 절손되어
없는데 김포계에는 14세까
지 대가 계승되고 있다.

...(전략) 문경공 직손과
는 예조참의(喬)공 이하로
7대가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대시간공파도 8대가
족보에 기록되어 있으며
삼우당 공파는 2대가 간
략히 나와 있다...(후략)

문경공 직손과는 위 계
도에서 보듯이 김포계보
에는 10세 根繼공이 대를
계승하고 있다. 根繼공은
참관공파로 엄연히 계보
가 따로 이어져 있는 대
도 참관공파를 생략해 가
며 직손과 계대로 10세
~14세까지를 기록한 모
순된 기록은 호화공이 문
경공 직손과 계보를 정확
히 모르고 김포계보를 집
필한 모순된 일이라고 하

기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丁酉譜, 甲寅譜, 壬午譜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았
다. 김포계보 작성시 문중
에서 수단하나 내지 않고
알가알부한 원인과 延一,
延三, 延七 계대가 불투명
하고 존재하지 않은 가상
인물의 기록 光天, 曾, 垠,
培 네분의 입출계(出入
系)관계의 착오 첨사(僉
使)공 延熙공과 延鳳공의
무분별한 혼동, 문경공 직
손과의 계과의 근간을 저
버린 모순과 光漢, 光鍊공
의 계대의 허위 사실 등
부정적이고 불확실한 자
료를 가지고 정유보, 갑인
보 편찬 시에 참석하였으
니(참석하였다는 근거는
영고기사에 밝혀짐) 반영
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인데 김포계에서는 정
유보, 갑인보 출판 당시에
청주, 옥천 문중만 참여하
고 김포문중은 참여하지
않아 김포계보가 반영되
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갑
인보 일부를 수정까지 하
여가며 김포계보의 정확
성을 주장하여 오다가 결
국은 다시 갑인보 그대로
정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김포 문중
스스로가 불신임하는 부
정확한 김포계보를 가지
고 嗣宗 계대가 따로 있
다고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김포문중 종친
들은 김포계보의 嗣宗 계
대만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김포계보 내용과
사실을 좀더 심도 있게
정확성을 살펴보기 바라
면서 전국의 현명한 종친
들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
합니다./범식: 대전시 대덕
구 범동 보람아파트 106
동 506호

* 기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 및 대중회의 공식내용과
일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헌연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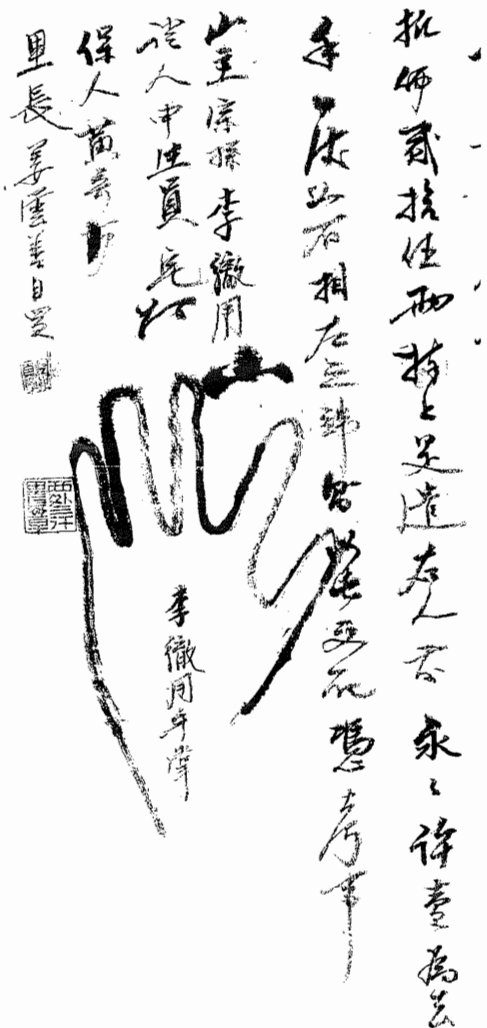
<1900년대 임야매매계약서>

1909년대(晩悔堂 자손)
에 선대의 묘소를 장만
하기 위해 재종간(徹用
공과 德用공 간) 임야(부
여군 세도면) 구입 계약
증서이다.

- 隆熙三年己酉三月十五日 姜雲善 前明文
- 右明文事段 鎮峯西面彦峴 曾祖山左便 一墳之地 折價二十五兩 持上 是遺右人前 永永許賣 爲去年之後 如有相左之端 則以此文記 憑考事
- 山主 宗孫 李徹用(山자 서명)
- 證人 申生員宅(서명)
- 保人 黃奇西(서명)
- 里長 姜雲善 自責(은선은 자이며 호적명 云善)
- 徹用 手掌(서명)
- 西外三 里之章

서기 1909년 기유년 삼
월 십오일 강운선 앞으로
보내는 글

오른쪽에서 밝힌 글은 진
장 서면 언 고개에 있는
이철철의 증조산소 왼쪽
에서 묘 한곳 쓸만한 땅
을 이십오량의 가격으로
정해 오른쪽 사람(이철철)
에게 주고 영구히 이 땅
을 샀으니 후일에 서로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이
글로 증거를 삼는다.(서명
자 생략)



위선사업(爲先事業)에 앞장 선 대전 의령공 문중
錫寧공의 7남 2녀 중 4남인 和茂씨의 정성 돌보인 납골묘



화무 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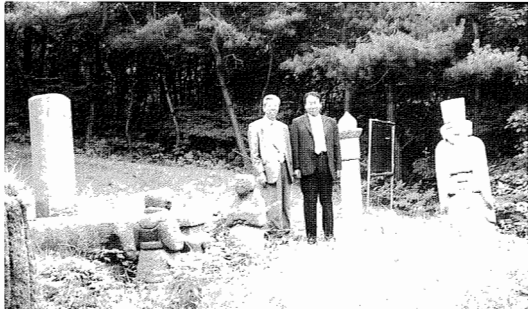
지난 해 4월 8일 오늘
날 묘소의 증가로 국토가
황폐해가고 있어 사회문
제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
에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和茂 일가가 120
기를 모실 수 있도록 150
여평 토지에 60평 남짓한
거대한 이 납골묘를 만들
어 집안의 위선사업은 물론,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화장문화발전에 앞서

고 있다고 주변에서는 칭
찬이 자자하다.
이 납골묘에는 의령공
문중 小山公(25세 丙必
1857~1954)을 비롯한 석
념, 은진 송씨, 밀양박씨,
건녕, 단양 이씨, 덕무,
만무, 은진 송씨, 상무,
은무 일가 등 이미 유명
을 달리한 후손을 모시고
있으며, 합삼 관리에 지
장이 없도록 장비 및 비
품 참고와 환경 조성에도
힘써 산신 제단까지 만들
었으며, 또한 이 지역이
공원화 되도록 정원수를
심는 등 정원처럼 잘 가
꾸었다. 납골당을 가꾸기
위해 주목 등 기념식수를
기증 한 분들은 다음과
같다.

이경희, 이경자, 이인
범, 최홍기, 이미현, 조홍
구, 김보현, 정형현, 이종
만 및 대전 금성회원 등
이다.
그런데 이 납골당 부지
는 화무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전답 150평으로 이
룩한 것으로 총소요 경비
는 사비를 드러 3,700여
만원(비품 및 시설비 포
함)이 소요되었으며, 6개
월의 공사 끝에 조성하였
다. 공사기간중 대전에서
옥천군 이원면까지 오르
내리다가 교통사고로 2
개월간 병원 신세까지 지
는 열성을 보여 그 노고
에 이양희 의원(자민당)
이 감동을 받아 묘소에
헌수하는 일도 있었다.

만녕회장 감찰공 묘소 현지 답사

감찰공 묘소치산에 적극 협력 다짐



고양시 향토 유적 제16호로 지정되어 있는 황해도 관찰사공(之信) 묘소 전경, 만녕 회장과 한구 부회장이(왼쪽으로부터) 감찰공 묘소를 살펴보고있다.



陶庵 李穡 先生 記蹟碑 천안시 광덕면 천계계곡 암자 앞에 세워진 추모비(1986년 건립 추모비 건립위원회 회주 辛慶淑)를 답사하였다.(왼쪽부터 만녕, 중무, 원무, 병태 일가들)



자손들이 외면해버린 묘소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구산에 있는 묘비(1904년 건립)가 후손들의 무관심으로 선조의 치적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丙天 종무위원 古稀 書藝展

論語句 등 70점 출품 전시



우강 병천 종무위원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과 국민예술풍회 이사이며, 낙원한사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병천 대중회 종무위원이 고회기념으로 제2회 牛崗 丙天 書展을 종로 공평동에 있는 백악예원에서 개최하였다. 그런데 병천 종무위원

은 지난 3월 계간 '현대수필사'가 선정한 수필 "며누리와 명심보감"으로 신인상을 받아 수필가로도 활동 중이다. 현재 상덕서법회 대표이다.



牛崗書展에서 夏村 柳寅植 선생이 고회를 축하하는揮毫를 전시장에서 쓰고 있다.

지난 7월 4일 만녕 회장은 1992년 치산 한 이래, 그 동안 운영유지가 어려워 묘소마저 방치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찰공과 종회(회장: 병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漢九 부회장, 丙泰 사무총장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감찰공(9세 折) 묘소를 돌아보았다.

감찰공 묘소는 그 동안 基寧(2002년에 작고 두계 박사 장남) 박사 소유로 있던 26,000평 중 3,000평 일대에 조선조 세종조 이후부터 감찰공과 세장지(世葬之地)로 활용되고 있는 땅으로 단일합방 이후 토지소유권 등기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종중 땅으로 내려 왔으며 최근까지 우봉이씨 자손 명의(李基寧박사 소유)로 있다가 지난 1991년 12월 1일자로 소유권이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앞으로 기부한 일이다.

당시 대중회에서는 기념 박사에게 선조 묘역 부분(약 3,000평)에 대하여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다만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측으로부터 1994년 8월 6일자(묘소관리에 대한 의견회신)로 묘소를 수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과 현경상 등 토지의 소유권을 변경할 경우 묘소소유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협의한다는 약속을 재단 측으로부터 공문(기념 박사 앞으로)을 접수한바 있다.

대중회와 지방 소종중 유대강화 다져

만녕 회장 보령 사직공 문중 일가와 아산 일가들도 만나

지난 9월 19일 지방 소종중 유대강화책의 일환으로 만녕회장과 병태 사무총장은 보령시 사직공과 종중(회장: 惠寧)과 아산 청백리공 아산 문중(회장: 丙國)을 방문하였다.

오전 사직공(9세 挺) 묘소가 있는 미산면 녹전리에서 덕녕 회장을 비롯한 흥녕, 길범, 중법, 관무, 문녕 등의 일가들의 영접을 받고 사직공 묘소를 참배하고 대중회에서 마련한 사직공과 종중 간담을 증명하였다.

오후에는 아산의 중무, 원무, 승무일가의 인내를 받아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에 위치한 증 이조참판공(21세

埴)과 증익공(22세 鎬俊)묘소를 참배하였다. 그런데 자손들이 묘소를 가꾸지 않아 잡초와 넝쿨 등 숲으로 쌓여져 있어 호준선조의 묘비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천안시 광덕면 천계계곡에 도암 이재선생 기적비가 있다는 암자를 답사하였다. 그런데 이 기적비는 1986년 도암 이재선생 추모비 건립위원회(회주: 申慶淑)가 세운 것으로 이 부근에 각종 토속 신앙 및 암자들이 산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아 도암선생을 신주로 하는 인면 구성리에 위치한 증 이조참판공(21세

계·시·판

동정 ▲조상묘소 순례(청장년회장:창무) 5월 11일 보령시 미산면 녹전리 사직공 및 병사공 묘소 순례 ▲茂錫(전 장재유사 신한회계법인(세무, 경영, 자문본부) 상무 인사차 내방 ▲회장단 및 종무위원회 개최(6.21)김포 강화 선조묘소(13世 胤·21世 圭) 및 古蹟探訪 ▲昇九(전 과학기술부 차관) 과학기술인 공제회 이사장 취임 ▲茂錫(정장년회 부회장·(주)농심 전무) 3월 31일 (주)泰耕 사장으로 승진취임 ▲아람(참판공문중·서울 시립대학교 재중) 장학금 서류확인차 내방 ▲萬寧(대중회장) 장학제도 설명회 활동, 한구 부회장(9.4) 증법 변호사(7.21), 영법 변호사(9.4), 태녕 감사(9.5), 병덕 부회장(9.17) 장학기금 평생회원약정 ▲만녕회장 및 병태 사무총장 출장(9.19) 보령시(사직공 집성촌) 종중방문(회장 덕녕씨 안내), 보령시 사직공 묘소 참배(이산면 녹전리 소재, 덕녕(사직공 보령종중 회장)興寧, 吉範, 仲範(재무담당유사), 冠茂, 文寧, 惠寧(회장), 牙山市(청백리공 아산종중 집성촌) 방문(중무씨안내), 仲茂, 元茂, 承茂(광일 총무부장) 안내로 鎬俊 선대 묘소 참배(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구

산) ▲3/4분기 종무위원회 개최(9.30) 총회준비 위원회 ▲丙天(종무위원) 10.9~15 서울시 종로구 白岳藝苑에서 '牛崗丙天書展' 개최 ▲玉茂(문경시 종중) 문경시 참업지원과 관광시설유치담당 ▲忠範(종무위원·변호사) 자전 예세이 출판기념회 개최(10.18 14:00) 강동구 고덕동 광문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결혼 ▲淸寧(부회장) 2녀 승민양(신랑 이경연군) 2003년 5월 1일 17:00 공군회관 컨벤션 홀에서 결혼식 거행 ▲茂源(외월공 문중) 3남 尙範군(신부 백은석씨 장녀 손은주양) 6월 1일 13:00 그랜드힐튼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 거행 ▲昌茂(종무위원) 장녀 주영양 결혼(신랑 신중철씨 장남 규일군) 10월 16일 17:00 LG강남타워 아모리스 홀에서 결혼식 거행

부고 ▲復寧(감찰공 문중·전 종무위원) 별세(4.28) 장지 천안공원 묘지, 부인 밀양 차씨(子여사) 사이에 尙茂 등 1남 6녀 ▲敏寧(감찰공 문중) 6.13 별세 용인선산 안장, 부인파평尹媛重여사 사이에 都茂 등 2남 5녀 ▲本寧(전 종무위원) 喪配(9.30) 서울 삼성중앙병원 영안실 20호, 발인(10.2) 장지 천안시 선산상주 영무, 웅무, 명현, 경숙 등 2남 2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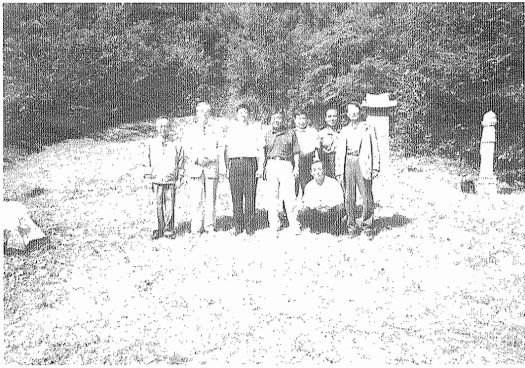
사직공 문중 묘소 등 순례

청장년회 연례행사 실시

지난 5월 11일 청장년 회(회장:창무)에서는 보령종회장(應寧)의 안내로 보령시 미산면 늑전리 사직공 및 병사공 묘소 및

해도 관찰사 두봉(吉培)공의 세제 아드님으로 우리 문중의 사직공 파조이며, 경기도 광주군(현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부득히 두 분은 대사간공 손자이신 한림공(11세 塘春秋編修官)묘소가 있는 강원도 횡성군 목계리로 먼례(緇禮)하고, 사직공은 아드님(承春 大司成)이 계신 충남 보령시 미산면 늑전리로 이장(緇禮)되신 선조이다.



사직공(9세 堦) 묘소를 참배하고 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였다. (좌로부터 흥녕, 만녕, 덕녕, 관우, 문녕, 병태 등 일가)



사직공 보령 증중을 방문한 만녕회장이 덕녕 보령 증중회장에게 간판을 증정하였다.



문경시 증중(회장 世寧)을 방문한 만녕 대총회장은 상산 김씨묘소를 성묘하고 일가들을 격려했다.

전안시 안누동의 동봉(전 대총회장:수녕) 공묘소를 순례하였다. 사직공은 환

두봉공과 증형인 대사간공과 함께 모셔졌던 것을 도시개발로 1963년 3월에

司直公 문중에 대한 來歷

사직(9세 堦)공은 1,400년대 때 분으로 세보 기록에 의하면 관직은 진사, 문과 급제 후 사직(五衛)에 속했던 법관 정 5품)과 대사간에 오르셨다. 그러나 사직공의 대사간 관직은 근거는 없으며, 다만 비문과 세보 수단 기록에만 기록되어 있어 대사간 관직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배위(配位)는 광산 김씨로 아드님 한 분(承春 大司成)을 두셨다. 묘비는 1965년 문중에서 세보 기사내용을 중심으로 표기하여 개수(改整)하였다. 사직공과 자손들은 보령 지방과 경주 안강지방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자손들은 대략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사직공 자손들이 안강에 집성촌을 이루게 된 것은 사직공 7대 손인 만의(晩宜)공의 부인 영양 최씨가 임진왜란 와중에 남편을 잃고 친정인 경주군 감서면 사박리(안강)로 세 아드님(緇·綱)과 함께 낙향하게 되어 오늘의 우봉이씨 집성촌을 이루었다. 후손들은 안강 성지산 기슭에 최씨 할머니를 모신 성산재(聖山齋)를 마련하고 해마다 자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낸다.

병사공은 사직공의 외 아드님으로 1504년 연산군 때 문신으로 성균관 대사성에 계실 때 홍문관에 대하여 논하다가 외직

秀, 喆衡, 德寧, 泰寧, 臣茂, 丙國, 丙珣, 丙爾(청장년회 부회장), 寅寧, 宇寧, 昇寧, 健寧, 根衡, 茂卓, 昌茂, 丙潛(金浦), 鉉寧(김포회장), 丙鉉, 俊寧, 杓寧, 茂潤(김포 유사)

<김포·강화 고적탐방 2페이지 계속>

寅武科로 中樞院議官, 成用은 丙寅武科, 基用은 壬辰武科, 性用은 參奉, 曾孫 晉九는 壬辰武科, 開花 후 鼎九는 言論人으로 집안의 기틀을 세웠다. 이날 참석하신 임원은 다음과 같다. •참석자 萬寧, 學九, 丙吉, 丙德, 舜寧, 丙泰, 丙



시조

讚 吟 頌

-宗會長 保寧地域 勒田訪問附讚吟-

李 惠 寧

○ ● ○ ◎
 一 根 同 祖 千 年 繼
 한 뿌리 같은 조상에서
 ● ○ ○ ● ◎
 一 族 同 孫 今 日 繼
 한 일가 같은 조상으로 오늘을 이었으니
 ● ○ ● ○
 協 力 京 鄉 宗 展 謀
 경향이 협력하여 증중의 발전을 도모하고
 ○ ● ○ ◎
 祖 明 雄 志 慈 孫 繼
 선조의 밝고 크신 뜻을 후손들이 이어가고자 하심이라.

2003. 9. 19

보기: ●축 ○평 ◎은
 편집자주: 만녕 대총회장의 방문 축하를 '讚吟' 漢詩로 맞이하였다. 惠寧(우봉이씨 사직공파 보령증중 회장) 惠寧 保寧市 主善院 堂里305-2 ☎ 041)933-1376, 011-209-1376

인 평안도 병마질도사로 나갔다. 공은 관직에서 물러난 후 보령군 통달산 기슭으로 낙향하였다. 그러나 공의 행장에 대하여서는 문헌자료 등이 병화(兵禍)로 불타버려 또한 알 길이 없고 배위(配位)도 성씨도 파평윤씨로 신위에 적어 시제를 지내고 있으나, 묘소도 실전되어 확실한 성씨나 묘소가 함정되어 있는지도 알 길이 없다고 문정공(19세 輝正)은 1819년에 세운 묘비문에서 밝히고 있다.

兵使公(承春)과 勒田里

다만 병사공에 대하여 집안(應寧 보령 사직공 문중 회장)에서나 인근동리 사람들의 구전에 의하면 연산군 사화로 낙향당신 가족이 흩어져서 어린 손자만 업고 서해로 피난 길에 올랐다가 배 위에서 통달산이 보이자 자신의 은신처라 생각하고 정착하기에 이르렀으며, 묘 자

리도 손수 선택하였다는 이야기만 전해 내려오고 있다. 늑전(勒田) 마을에 대하여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走馬脫勒形 즉 달리는 말이 굴레를 벗어나려는 모양이라 하여 이 마을의 이름도 늑전리가 되고 산기슭 골짜기의 이름도 초창골로 부르게 되었다 한다. 그러나 이 묘비에는 통달산이 좋다는 말을 듣고 집을 옮겨 늑전에 산다고 이름을 붙였다고 밝히고 있다.

늑전리에는 병사공 묘소가 있고 인무(仁茂 初名 讚), 중산(仲山), 중익(仲益)공 등 세 아드님의 묘소가 실전된 것으로 세보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오늘날 사직공 자손들은 병사공의 아드님과 손자들의 묘소는 실전된 것이 아니라 병사공만 낙향하여 당초부터 자손들의 묘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